

## 문화적 차별, 편견의 실태

### ◎ 학습목표

1.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차별과 편견의 사례를 파악할 수 있다.
2. 진정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.

### ◎ 학습목차

1. 일상 속의 차별과 편견
2. 차별과 배제를 낳는 편견
3. 진정한 다문화 수용성

## I. 일상 속의 차별과 편견

### 1. 학교에서

#### \* 참고영상

<https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13621563&memberNo=5246326&vType=VERTICAL>

-너의 이름은 “다문화”

"엄마 선생님이 자꾸 나한테 다문화라고 불러": 몽골이주여성의 딸 사례

-다문화 가정 학생을 차이나 (China?)라고 부르는 선생님도 있음

### 2. 외국인 노동자에 수많은 차별, 착취, 폭행 사례들

-노예농장: 비닐하우스 농장들, 어선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실태

\* 참고영상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hYU6XmllAMk&feature=youtu.be>

### 3. 말로만 다문화 사회

\* 참고영상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4o19o-l6wHU&feature=youtu.be>

#### 1) 사인 안 해!

-더럽고, 위험하고, 어려운 이른바 3D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: 고용주 허가가 없으면 작업장을 옮길 수도 없어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

- 이주 노동자의 체류 기간은 최장 4년 10개월: 고용 허가제 관리를 받음
- \*체류 기간이 5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져 이를 피하기 위함

2) 다문화 가족 지원, 되고 있나요?

- 매주 열리는 밤도깨비 야시장 행사에서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 이주 여성들이 출신 국가 전통 음식을 만들어 팔고 있음
- 각 지방 자치 단체에 마련된 이른바, '다문화가족지원센터'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스스로 돕는 단체를 만든 것

[이레사 / 결혼이주여성 자조단체 '톡툼미' 회장

: 가족의 안정감,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확실함,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. 그런 게 도움이 됐다면 (다문화가족지원)센터들에 다 다가가겠죠? 안되니까 안가는 거 같아요.]

==>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고,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동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

[허오영숙 / 이주여성 인권센터 대표 : 다문화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지칭하는, 그리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, 뭔가 한국 사람들이 도와줘야 할, 평등한 주체로서의 이주여성을 상상하지 못하게 만드는...]

==>외국인 정책 관할 기관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, 여성 가족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것도 문제

4. "유치원서 퇴짜" "쓰레기 투기 의심"...이주민 인종차별 사례

\* 참고영상

<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6/11/30/0200000000AKR20161130073300371.HTML>

-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싶었으나 포기  
: 유치원 측이 "혼혈인을 받으면 다른 한국인 엄마들이 싫어해 아이를 다른 유치원으로 옮길 수 있다"입학 거부

-페루 출신 M씨는 집 앞에 음식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사람으로 지목돼 집주인 비난  
\*집주인 "유일한 외국인 거주자인 당신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"

-한 결혼이주여성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신청하자 담당자는 "외국인이



어서 안 되고 남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"며 거절

- \* "늘 혼자서 신청해 발급받았는데 뭐가 문제나"라며 거듭 따지니까 그제야 다른 직원이 와서 서류 발급
- \*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수집한 191개 인종차별 사례 가운데 일부

==>이주민들이 겪는 인종차별은 모욕·불공정 처우·신체 폭행 등으로 형태가 다양했고, 직장·상점·학교·길거리·공공장소·일상적 생활공간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졌으며, 대상도 성인·청소년·아동 등 전 연령에 걸쳐 있음

## II. 차별과 배제를 낳는 편견

※참 고: 김지윤, 강충구, 이의철, 「Issue Brief: 달린 대한민국: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」, 2014. 2. 4. 아산정책연구원

### 1. 한국의 동화주의적 다문화 정책과 사회인식

1) 정부 주도의 다문화 정책: 자국민 중심의 동화정책

-외국인과 이주민이 우리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초점

2) 다문화 정책 프로그램: 상호이해 증진에 실패

-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

\*동화(주로 결혼이주민): 54.4%

\*한국문화체험: 16.1%

\*상호문화이해(문화다양성) 증진: 14.4%

\*한국인대상 문화체험: 5.4%

\*이주민 모국향수 해소: 2.1%

### 2.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속내: 아산정책연구원의 2013년 연례조사

1) 크게 보면 긍정적 태도

-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

\*대다수의 한국인(79.2%)은 외국인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함

-반면, 일반 외국인에 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약간 낮은 수용도(67.5%)를 보임

2) 문제는 최근의 부정적 경향



- 최근 외국인,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음
- \*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최근 3년간 다소 부정적으로 변함

◆ 다문화 가정 증가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(%)

	2011년	2012년	2013년
경쟁력 강화	74.2	70.1	67.5
사회통합 저해	25.8	29.9	32.5

※ 출처: 김지윤, 강충구, 이의철, 「Issue Brief: 달린 대한민국: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」, 2014. 2. 4. 아산 정책연구원, p. 5

-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 변화

◆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(%)

	2010년	2012년	2013년
한국 사회 가치를 어지럽힌다	15.7	19.8	21.5
한국 사회 적응 노력이 부족하다	24.6	23.5	27.2

※출처: 김지윤, 강충구, 이의철, 「Issue Brief: 달린 대한민국: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」, 2014. 2. 4. 아산 정책연구원, p. 7

3) 좀 더 들어가 보면

- 과반에 이르는 응답자가 외국인 이민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, 이민자에 대한 선호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임
- \* 다섯 국가 출신 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  
: 부정적 인식이 51.1%, 긍정적 인식이 48.9%

\*외국인으로부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79.2%,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 비율이 67.5%였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

-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출신 국가별로 차별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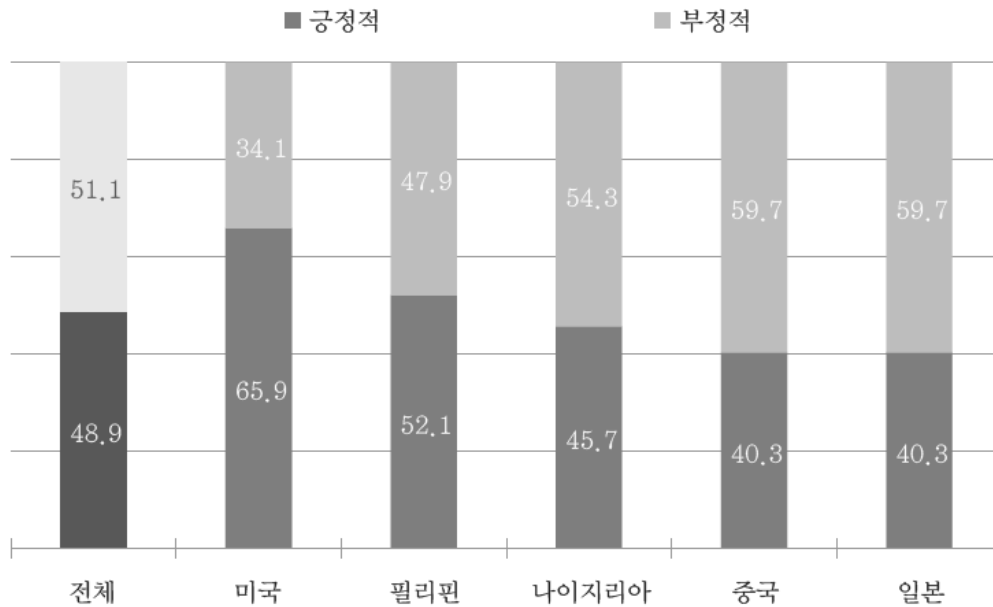
\*미국인의 이민에만 긍정적: 65.9%

\*중국과 일본 이민자에 대하여는 가장 부정적인 태도: 59.7%가 부정적

\*필리핀 이민자: 긍정적 52.1%

\*나이지리아 이민자: 부정적 54.3%

◆ 출신국가별 외국인 이민에 대한 인식 (%)



※출처: 김지윤, 강충구, 이의철, 「Issue Brief: 닫힌 대한민국: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」, 2014. 2. 4. 아산 정책연구원, p. 8

-세대별 차이: 유색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편견

\*20~30대 청장년층: 미국 이민자에 긍정적, 중국 출신 이민자에 부정적

\*40세 이상: 미국 이민자에 대한 선호와 중국과 일본 이민자에 대한 비선호가 뚜렷함

\*50대에서 60세 이상: 일본 이민자를 극도로 거부



◆ 세대별 이민자에 대한 태도: 부정적 인식 (%)

구분	미국	필리핀	나이지리아	중국	일본	
전체	34.1	47.9	54.3	59.7	59.7	
세대별	20대	<u>31.0</u>	51.1	47.4	<u>69.0</u>	50.0
	30대	<u>30.5</u>	42.6	47.3	<u>57.7</u>	48.0
	40대	<u>34.9</u>	42.8	48.0	55.4	<u>57.2</u>
	50대	<u>36.6</u>	48.3	60.3	60.3	<u>65.8</u>
	60+	<u>36.8</u>	44.8	57.5	57.5	<u>76.2</u>

※출처: 김지윤, 강충구, 이의철, 「Issue Brief: 달린 대한민국: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」, 2014. 2. 4. 아산정책연구원, p. 9)

III. 진정한 다문화 수용성

1. 일상의 차별과 배제를 인식하는 감수성

2. 한국사회의 구조적 사회문제와 다문화 사회현상의 연관성 인식

-금수저, 은수저, 흙수저, 다문화, 외국인 노동자, 난민

3.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파악

1)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한국에 정주하는 이주민만을 포함

\*미등록 이주노동자, 귀환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배제  
: 이주노동자가 이주민 인구의 절반을 넘는 상황

\*이주노동자 가족 동반은 금지돼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인 의료 보험과 교육권도 보장되지 않음



2) 결혼 이주민(여성)들의 안정적인 체류 문제 대책 미흡

- \*결혼 이주 여성들은 배우자(남편)의 신원 보증이 있어야만 체류 자격을 갱신할 수 있음
- \*이혼할 경우에도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한국에 체류할 수 없음

3) “다문화” 속에 자리 잡은 일방적 동화주의, 혹은 또 다른 차별의 벽?

◆ 생각해봅시다.

외국인들이 주로 나오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좋은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골라 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.